

日本史 속의 건물과 도시

Buildings and Cities in Japanese History

趙仁淑 / 다리건축
by Cho, In-Souk

日本史속의 건물과 도시
(Buildings and Cities in Japanese History)¹⁾

1. 개관—원시시대
2. 제례의식, 불교미술
3. 都邑
4. 住居와 조경
5. 사무라이文化와 쇼잉(書院),
茶室과 스기야(數寄室)
6. 城의 時代
7. 에도(江戸)—‘空間’과 ‘場’으로서의 江戸시대
8. 民家
9. 근대건축의 태두
10. ‘전통’의 재고, 현재속의 과거

시작하면서

일본의 안도·다다오(安藤忠雄)는 요즘 동양 아니 세계최고의 Regional Architect로 평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도(安藤)건물을 표현된 최종 껍데기만을 보기때문에 왜 일본인들이 그의 설계를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 특히 우리에게 일본건축을 볼 줄 아는 안목이 부족해서인지 더욱 그렇다.

그들이 사랑하는 ‘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가? 멀리 일본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의 것조차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책이나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는 서양대가들의 작품은

다 알아도 우리는 수덕사 평면하나 못 그린다. 우리는 늘 너무 먼 곳,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배워왔고 그것들에 관심이 많았을 뿐 정작 주변에 대해서는 알고있지 못해왔다.

필자가 건축학도이던 시절에 유럽유학에의 꿈을 한껏 키우면서 독일어니 불어니 하는 유럽의 언어들을 배우느라 한참 열을 올리던 적이 있었다. 여기치 않았던 일로 방향을 바꿔 졸업후 설계사무소에 취직하여 오늘날까지 십 수 년 일을 해오면서 그동안에도 무수히 먼 나라들을 동경해 왔었다. 그러던 어느날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내겐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 ‘한국미술사’라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건축도 한국건축을 따로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아주 우연한 계기를 통해 오랫동안 만난 여학교 동창이 한국미술사를 공부하고 있었고 그 친구와 함께 한국박물관회 주최의 고적답사를 따라가게 되었었는데 그 때 처음으로 ‘백제의 미소’(archaic smile)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다. 그무렵 나는 칸트의 空間論도 읽었고 헤겔의 美學도 읽었는데 부끄럽게도 ‘백제의 미소’라는 용어를 처음 안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 간을 한국미술에 대해 다시 열을 올리게 되었고 고적답사를 열심히 쫓아다녔다. 무슨 계산속이 있었서가 아니고 별이유없이 그냥 재미있어서 그렇게 돌아 다녔다. 특별히 자료를 모으거나 그렇게 하기 보다는 그냥 몸 속에 그 감정들이 들어오게 내버려 두었다. 그러다보니 佛敎를 모르고서는 도저히 우리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아가 중국, 일본의 건축 및 문화사를 모르고서 흐름의 맥락이 끊겨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되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하게 동양언어였는데 삼십이 훨씬 넘어 낯선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니 도저히 머리에 남지를 않아 결국은 마스터를 못하고 그저 더듬더듬 자료나 찾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본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체질이 아니라 잘 하지는 못하나 즐기는 편이라 가끔씩 좋은 자료들을 확보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혼자보기 아까와서 여러 사람이 같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니 소개를 하고 싶어도 체계적으로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인지 글로 표현하면 영 조리가 안 선다. 도대체 어떻게 써야할 지 잘 모르겠다.

몇 년 전부터 눈을 내 가까이로 돌려서 보니 너무도 할 것이 많고, 볼 것이 많으나 주업(主業)이 설계일이니 틈날 때 한가지씩 자료를 만들어보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요즘 중국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으나 아직도 감정이 남아 있는 탓인지 일본 것들은 소개가 잘

안되고 있다. 이에 미흡한 줄 뻔히 알면서도 감히 일본건축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건축 및 도시의 전통을 살펴보고자 함에 무엇보다도 그 건물들이 만들어졌던 때의 상황에서 그 文化的 의미와 사회관습적 중요성에 중점을 두어 정리하려 한다. 이 글은 학술논문으로서 보다는 자료정리로서 소개하는 바이며 이런 소개글이 전문가들의 글을 접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할 뿐이다.

항목은 편의상 9~10회로 나누어 구분하여 제품들을 달았지만 사실상의 내용은 미국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日本史를 가르치는 스미스교수의 강의를 토대로 하였고 그에 따른 참고 문헌들을 소개한다.

되도록 고유명사는 한자를 괄호속에 넣고 발음나는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있는 용어들은 간혹 그냥 쓰기도 한다.

이 글을 전개해 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세가지 주요용어는

1. 마(間, space) 2. 겐저꾸(建築, architecture)
3. 시젠(自然, nature)-바위, 풀, 나무들이다. 그중 일본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마(間)"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마(間)'라는 개념은 時間과 空間의 의미를 얼른 연상시킨다.

니콜라우스 페브스너는 그의 책 An Outline of European Architecture 서문에서 건축을 회화나 조각으로부터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空間의 質(spatial quality)로 결국 人間이 空間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바로 건축사라고 했다.^{*)} 이 글 日本역사 속의 건축물과 도시를 살펴 보면서 기능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려한다.

1. 개관

일본은 우리와는 가깝고도 먼 나라로 우리는 늘 일본을 '왜'(倭, 일본말로 '와'라 부른다)라 하며 마치 역사도 없는 아주 우스운 나라 취급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 밖을 나가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실감을 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실제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도대체 일본이란 나라가 얼마나 크며,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저만큼 크게 되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일본의 國土는 면적 약37만km²로 나카노지마(沖の島)를 제외하고 남북 위도 차이

시대구분(chronology)²⁾

고대

쥬오몽(繩文)	? -c. 300B.C
야요이(彌生)	c. 300 B.C-A.D 300
고분(古墳)	c.300-552
아스카(飛鳥)	552-645
하쿠호오(白鳳)	645-710.....668
통일신라	
나라(宗良)	710-794
헤이안(平安)	794-1185.....918
고려	

중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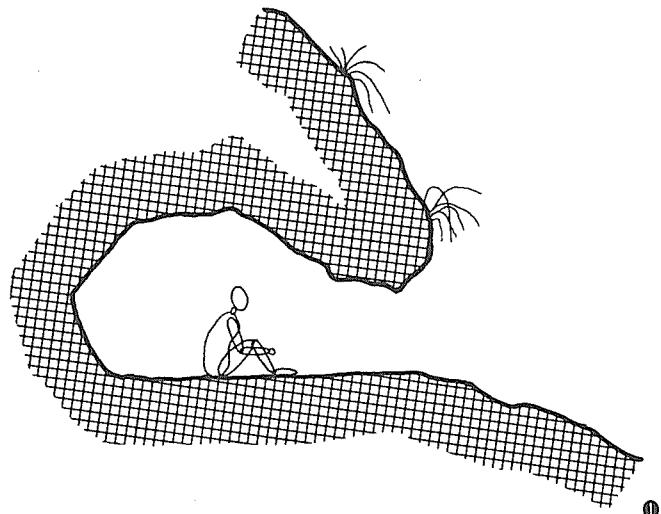
가마꾸라(鎌倉)	1185-1600
남보꾸조(南北朝)	(1336-1292)
무로마찌(室町)	1392-1573.....1392
조선	

봉건사회

모모야마(桃山)	1573-1600
에도(江戸)	1600-1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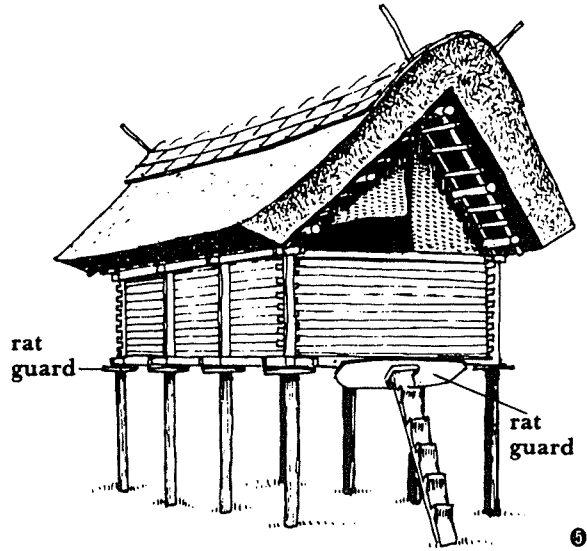
근대

메이지(明治)	1868-1912
다이쇼오(大正)	1912-1926.....1910
쇼오와(昭和)	1926-1989.....1945대 한국
헤이세이(平成)	1989-





2



5

약22도에 걸쳐 있다. (미국은 786만km², 알래스카 화와이를 제외하고 약25도에 걸쳐있고 독일의 경우 약36만km²에 약 8도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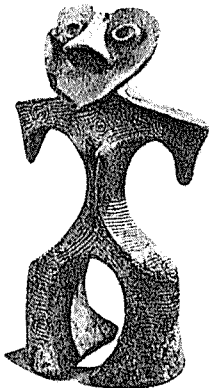
• 초기일본문화(原始시대)

일본문화의 근간이 되고있는 원시문화로는 조오몽(縄文)과 야요이(彌生)가 있다. 고고학자들은 日本에서의 신석기 시대(8,000(?)~300B.C.)를 조오몽(縄文, rope pattern)이라고 부른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던 土器(pottery)들에 나타난 새끼줄문양(縄文)의 특징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조오몽 시대에는 도구우(土偶, earthen figurine)라고 하는 반은 인간의 모습을 반은 짐승의 형태를 한 것을 만들기도 했다. 여자의 형상을 한 도구우(土偶)는 특히 가슴과 배 등을 크게 만들어 풍작이나 多産을 기원하는데 쓰이곤 했다. 이 당시 주거형태로는 최초의 건물인 다테야나(竪穴 pit-dwelling, 竪穴이라고도 쓴다)로 그 크기는 대체로 작았다. 보통의 것은 깊이 60cm정도에 지름 4.5m 정도로 4~5인(즉 핵가족)에 알맞은 크기였다. 이 시대에는 무덤 또한 아주 작았는데 사실은 시체를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구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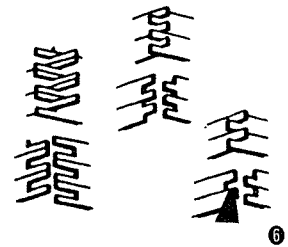
B. C 300년 경 대륙으로부터 새로운 文化가 흘러들어오게 되고 조오몽시대는 끝이 나게 된다. 쌀농사 짓는 농경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일본은 야요이(彌生 ca. 300 B. C ~ A. D300)라고 부르는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이 당시 문화의 흔적이 토오쿄오(東京)근처 야요이(彌生)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그때 쌀은 가장 주요한 경제산물이었다. 한편 청동(bronze)이나 철(iron)등의 금속사용 또한 이 시기에 소개되어 청동은 장신구로 철은 실용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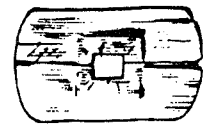
3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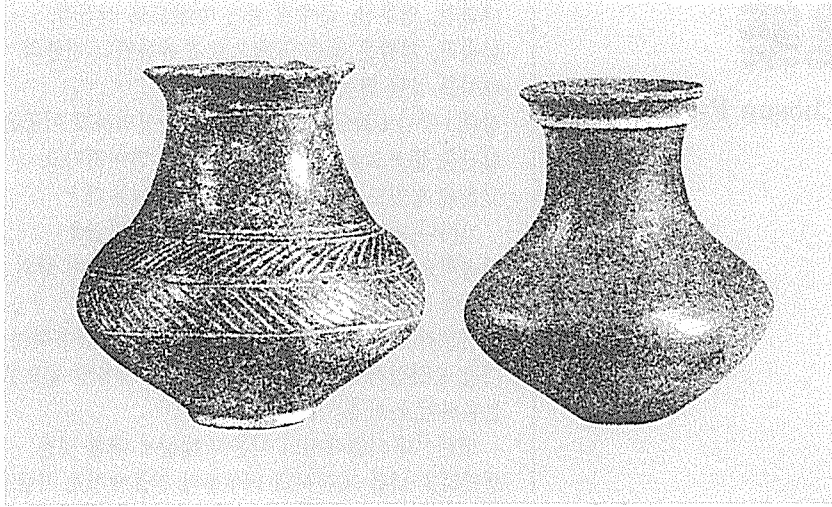


7



8

목적에 맞게 쓰여졌지만 사실상 무기를 만드는데 쓰여졌다. 이때에도 土器(pottery)가 만들어졌는데 조오몽 土器와의 차이점은 조오몽시대에는 '장식' 그 자체가 강조되었고 야요이시대에는 장식적 요소가 줄어들고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형태'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 주거형태도 조금 발전된 竪穴住居였다. 이 때에 창고라 추정되는 高床式의 원시건물의 유형이 또한 만들어진다. 토오쿄오



① 동굴, A Simple Interior Space
인류 최초의 주거 형태인 동굴은
사실상 Inter Space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었다. 적어도
건축공간으로서 얘기되자면
느껴져야 하고 확실해야 한다.
동굴과 같은 기능의 오늘날의
공간은 지하철 역이나 지하상가
또는 지하주차장을 들 수
있겠다. (미츠오 이노우에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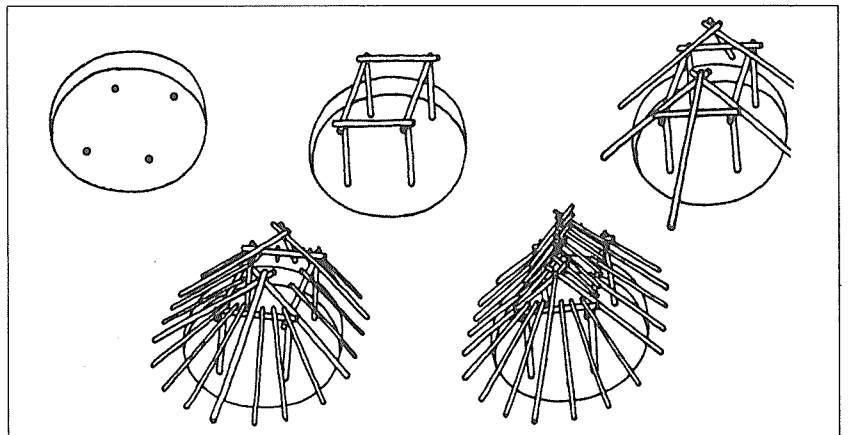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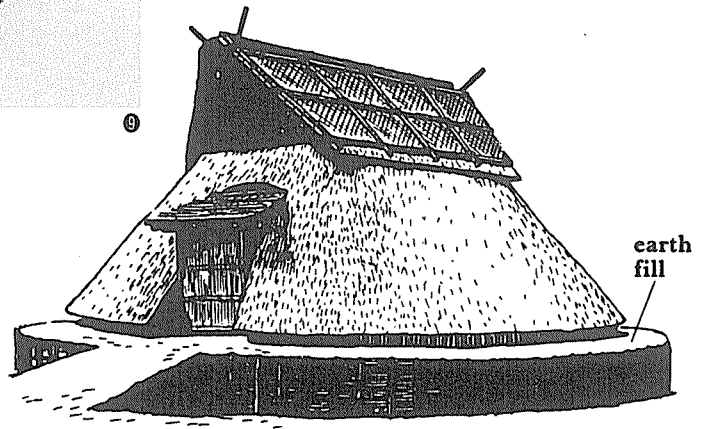
근처 시즈오카(静岡縣) 토로(登呂)유적지는
야요이문화의 대표적인 곳으로 다테야나(縦穴,
pit-dwelling) 및 高床式 창고건물(elevated
storehouse)이 남아있다. 토로(登呂)의 竪穴住居는
6m x 8m 정도의 둥그런 거주부분(living area)으로
되어있고 이는 땅을 파서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빔(beam)으로 연결한 후 그 위에 지붕구조를
엮었다. 주변을 흙을 돌우어 단을 만들고 거주부분
내부에는 로(爐)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말뚝기둥
위에 세운 高床式창고는 쥐나 그밖의 해충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설비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계속)

□참고문헌□

1. 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
by MITSUO INOUE
2. JAPANESE CULTURE
by H. Paul Varley
3. 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by Kazuo Nishi and Kazuo Hozumi
4. 日本美術史 監修 山根有三
5. 日本美術史 진흥섭譯

註)

- 1) 스피스교수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고 항목분류는 주제별로
몇가지씩 뭉뚱그려 크게 10가지로 구분했다. 사정에 따라 조절될
경우도 있으리라 본다.
- 2) 미츠오 이노우에
"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日本建築の空間)" 의
시대구분을 참조하였다. 그는 '아스카'에서 '에도'까지를 Period라는
용어로 '메이지'이후는 'Era'라는 용어로 구분했다.
에드윈, 라이샤워는 아스카 이전까지는 씨족사회라 분류했다.
- 3) Nikolaus Pevsner, An Outline of European Architecture p. 7



- | | |
|---|--------------------------------------|
| ② 죠오문(縄文)土器,
東京國立博物館(日本美術史
p. 14, 15) | ⑥ 야요이(彌生)高床式 창고의 걸구법 |
| ③ 죠오문 구우(縄文土偶),
明治大學(日本美術史 p. 17) | ⑦ 쥐나 해충을 막는 디테일 |
| ④ 죠오문(縄文)土器,
山崎家(日本美術史 p. 14, 15) | ⑧ 사다리 |
| ⑤ 야요이(彌生)高床式 창고 | ⑨ 야요이(彌生)土器,
東京國立博物館(日本美術史 p. 22) |
| | ⑩ 야요이(彌生)住居 복원도 |
| | ⑪ 야요이(彌生)住居 상상도 |